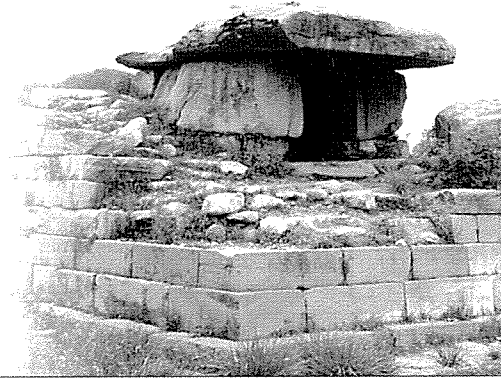


피라미드와 비견되는 선현들의 축조 솜씨

1,500년 끄떡없이 버틴기단식돌 무지 무덤의 '태왕릉'과 '장군총'

태왕릉과 장군총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구려에 강한 매력을 느끼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강한 군대로서 중국의 방대한 영토를 확보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에 있을 것이다. 당시 고구려인들의 세력이 오늘날 중국의 북경지역 인근까지 확장하였다는 사실은 한민족으로서 깊은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고구려는 여러 민족들과 국경을 접했음에도 위축되지 않고 지속적인 영토 확장 정책을 폈다. 태조(53~146)때 큰 성과를 거둔 후 주변 세력들과 계속되는 전쟁을 벌이며 진퇴를 반복하다 광개토대왕(391~413)때부터 본격적인 정복사업이 펼쳐진다.

광개토대왕이 즉위초부터 정력적인 정복사업을 벌인 결과, 고구려 영토는 서쪽으로 요하, 남쪽으로 거의 한강 유역에까지, 북쪽으로 개원, 그리고 동쪽으로는 옥저와 예까지 이르렀다. 이 시기가 고구려가 가장 광대한 국토를 확보했던 최전성기로, 학자들은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고조선 영토를 거의 전부 회복했다고 추정한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집안에는 현재 확인된 것 만해도 12,358기(『집안현문물지』는 11,280기로 계상)의 무덤이 있다. 이곳에는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되는 태왕릉, 장수왕릉으로 추정되는 장군총, 고국양왕릉, 미천왕릉 등 고구려의 역대 왕릉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 무덤의 크기이다. 천추릉은 85×80미터, 태왕릉은 한 변의 길이가 66미터, 장군총은 34미터이다. 천추릉은 무덤 자리 만해도 6,800제곱미터로 실평수 50평짜리 아파트의 40채보다 더 큰 건축물이다.

태왕릉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기단식돌무지무덤(넷돌, 막돌 또는 다듬은 돌을 쌓아 만든 무덤)으로 묘 자체는 거의 모두 붕괴

되어 기단과 반파된 제2방단의 일부만 남아 있다. 기단의 각 변의 길이는 약 66미터이고 4면 각 면마다 5개의 커다란 입석을 계단에 기대 놓았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7층으로 기단 위로 올라가면서 석대의 높이를 줄였다. 방단의 내부는 막돌과 장돌로 채웠는데 평면 면적을 감안하면 유명한 장군총장수왕릉으로 추정)의 4배에 달한다.

묘의 정상부에서 고구려 기와 파편 전돌, 특히 '원태왕릉안여산고여구'라는 명문전이 발견되었고 초석이 있는 건물지가 확인되어 제사를 지내던 작은 사당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의 서벽 중앙에 달린 연도와 평면이 방형에 가까운 현실(동서 2.82미터, 남북 3.16미터)로 이루어졌고 천장 가구는 전벽, 후벽의 위에 3단으로 괴었고 그 위에 뚜껑돌로 동서 지름 4.55미터, 두께 0.8미터나 되는 큰 화강암 판석을 덮었다. 지면에서 현실 천장까지의 높이는 약 16미터이다.

광개토대왕비의 서남쪽 1킬로미터 지점(길림성 집안현 통구의 龍山)에 일반적으로 장수왕릉으로 알려진 장군총이 있다. 우산하 1호분이라고도 하는데 역시 기단식돌무지무덤으로 7층 높이에 피라미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장군총은 화강암을 장대석(장방형입방체)으로 잘라 잘 다듬은 후 축조했는데 무덤에 사용한 돌의 숫자는 모두 1,100여개에 달한다. 돌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무덤 네 변에는 거대한 돌을 3개씩 기대어 세워 놓았는데 북쪽 맨 왼쪽 하나가 깨져 지금은 열한 개만 서있다. 이 돌들은 커다란 농의 밑 기단 돌이 밀려나지 않게 하기 위해 놓은 받침돌이라는 설과 12지를 나타내는 수호신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제1층 평면

은 정방형으로 각 변의 길이가 34미터인데 4단의 장대석으로, 제2~7층까지는 각 층 모두 3단으로 쌓았는데 1층의 돌은 하나의 길이가 5.5미터, 너비와 두께가 대략 1미터나 되는 큰 돌이다. 장군총이 1,500년의 세월을 끄떡없이 버티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고구려의 특별한 축조기술 때문이다.

첫째 튼튼한 기초 공사를 했다. 최근 밝혀진 자료에 의하면, 장군총 주위의 지면을 깊이 5미터 가량 파고 그 안에 길이 2미터, 너비 1미터 정도의 자연석을 깔고 그 사이를 다시 강돌로 다져 넣어 엄청난 룡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다.

둘째는 고구려의 유명한 그랭이 공법을 사용했다. 그랭이 공법이란 자연석의 굴곡된 부분을 그대로 살린 채 가공하여 위에 엮는 돌을 자연석의 형태대로 깎아 완벽하게 접합시키는 공법이다. 고구려에서 시작된 이 공법은 불국사의 축대, 각 사찰의 기둥과 주춧돌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일본의 정창원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사 건물에서도 사용되었다.

세 번째로, 역시 유명한 퇴물러쌓기(들여쌓기)와 흙파기를 들 수 있다.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들여쌓고 밑돌은 가장자리가 조금 올라오도록 흙을 파고 그 흙에 맞추어 윗돌을 맞물리게 놓아 상부에서 압력이 가해져도 밀려나지 않도록 했다. 정상부는 석회와 자갈을 섞어서 돛형으로 둥글게 마무리했고 갓돌에는 구멍들이 남아 있어 원래는 난간이 둘러쳐져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매장 부분은 제3층 상면을 바닥으로 하여 정방형의 현실과 남쪽으로 길게 통로가 연결된 석실로 구성되어 있다. 석실의 각 벽의 경우, 2개의 장대석을 아래위 엇갈리게 쌓아 올렸다. 현실 입구는 문짝을 달 수 있도록 돌출시켰고 현재는 개방되어 있지만 본래 제4층의 벽 속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폐쇄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태왕릉은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되지만 학자들간에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1905년, 처음으로

현지조사한 일본인 도리이와 프랑스 학자 사반 등은 태왕릉을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했다. 반면 일본인 세키노는 광개토대왕비의 서남쪽 1킬로미터 지점(길림성 집안현 통구의 용산)에 있는 장군총을 광개토대왕릉으로 추정했다. 일본인 미카미는 장군총의 축조 기술이 태왕릉보다 발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장군총을 광개토대왕의 아들인 장수왕릉으로 추정했고 이케우치는 장군총을 고구려 10대왕인 산상왕릉으로 추정했다. 북한과 중국의 학자들은 태왕릉을 광개토대왕릉으로, 장군총을 장수왕의 능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개토대왕은 ‘호태왕’, 또는 ‘영락대왕’이라고도 불리는데, 고구려 왕 중에서 ‘태왕’이라는 명칭의 호를 가진 왕은 오직 광개토대왕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중국학자들은 장군총과 관련한 매우 색다른 가설을 내 놓았는데, 장수왕이 장군총을 건설하였지만 장수왕의 무덤은 아니라는 것이다.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무려 65년(491년 사망)이나 더 살았고 주로 평양에 근거지를 두고 활발한 정복사업을 펼쳤는데, 그가 죽은 후 시신을 옛 수도인 집안으로 옮겨 장례를 지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학자들은, 집안에 있는 장군총은 장수왕이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하려고 축조하였는데 평양으로 천도했기 때문에 장수왕의 가묘로 남았고 장수왕의 실제 묘는 고구려의 시조묘로 알려진 ‘동명성왕릉’이라는 것이다. 평양에 있는 동명성왕릉이 장수왕이라는 가설에 대해 학자들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고구려 시조인 동명성왕릉을 평양으로 천장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아시아 동북지방에서 강성한 위력을 자랑하던 고구려의 지배자가 시조묘를 천장한 내용조차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글 | 이종호 과학저술가



장군총 전경